



보도시점 2026. 1. 15.(목) 17:00
1. 16.(금) 조간

배포 2026. 1. 15.(목) 09:00

농식품부,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TF 발족

- 「농림분야 안전관리 TF」 구성하고, 착수 회의(Kick-Off회의) 개최(1.15.)
-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실 신설('25.12.30.)에 따라 농림분야 안전관리 총괄수행
- 정부, 공공·연구기관과 농업인 단체도 분야별로 참여,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농림분야 안전관리 TF」를 구성하고, 1월 15일 착수회의(Kick-Of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0일 농식품부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실에서 농·임업인의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등 관계기관·부서별로 추진되는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농림분야 안전관리 TF」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을 단장으로 5개반(①총괄·제도반, ②농기계안전반, ③취약계층인력안전반, ④시설·기반안전반, ⑤임업안전반)으로 구성하였고, 각 반별로 정부, 공공기관, 전문기관과 함께 농·임업인 단체도 참여한다.

농식품부는 TF 운영을 통해, 분야별 안전관리 현황과 기존 대책을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적용가능한 과제를 선정하여 3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농업인 단체 등의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농림분야 안전관리 TF」 단장인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TF는 농림업인 및 농림 종사자의 사망·사상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면서 “제도적·행정적 차원의 개선뿐 아니라, 실효성있는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실 농업재해지원팀	책임자	팀 장	최종순 (044-201-2871)
		담당자	사무관	안광현 (044-201-2872)